

“삼구는 하나입니까, 셋입니까?” “하나도 셋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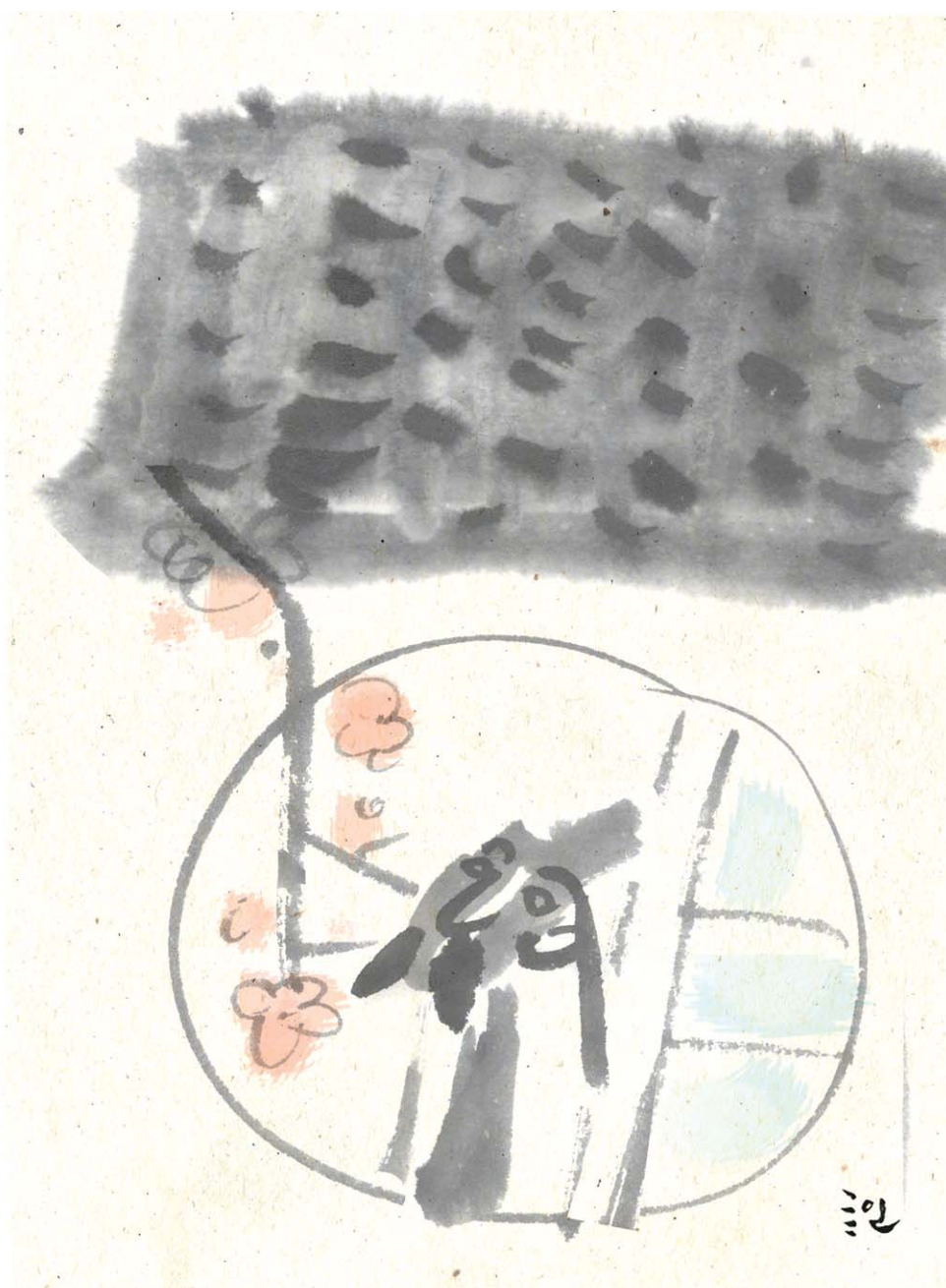
<22> 선사(禪師)문화의 거사들(3)

우두선(牛頭禪)이 절강(浙江)지역에서 흥성한 뒤, 지금의 사천(四川) 성도(成都) 일대에는 보당선(保唐禪)이 활약하고 있었다. 보당선의 선구자는 자주(資州; 지금의 四川省 資中) 덕순사(德純寺)의 지선(智詵) 선사이다. 실제 창립자는 성도(成都) 정중사(淨衆寺) 무주(無住) 선사이고, 무주의 스승은 정중사의 무상(無相) 선사였다. 보당선과 정중선(淨衆禪)은 사자상승(師資相承)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선학(禪學)에 있어서도 내재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종밀(宗密) 선사의 <중화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에 따르면, 지선 선사는 흥인(弘忍) 선사의 십대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출가 후 먼저 현장 법사를 사사(師事)하다가 후에 흥인 선사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 흥인 선사를 떠난 후에는 사천 자주의 덕순사에 주석했다. 만세(萬歲) 통천(通天) 2년(697),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천관량중(天冠朗中) 장창기(張昌期)를 파견해 지선 선사의 일경(京)을 청했으며, 지선 선사는 이에 응하여 장안(長安)으로 가서 내도랑(內道場)의 공양을 받았으나 오래지 않아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돌아왔다.

서령(中書令)을 겸하다 남강군왕(南康郡王)에 책봉됐다. 덕종(德宗)의 재위기간에 거사는 남쪽의 운남(雲南) 민족(蠻族)과 연합해 서쪽의 토번(吐蕃)의 침략을 물리치고, 서남지역 변방을 안정시켜 당조(唐朝)에 공헌했다. 그는 유명한 불교거사로 <가주미륵여래석상기(嘉州彌勒如來石像)> <재수성도부대성자사금동보현보살기(再修成都府大聖慈寺金洞普賢菩薩記)> <보음사기(寶應寺記)> <보원사전수비니신소기(寶圓寺傳授毗尼疏記)> <사천영무사리탑기(四川鸚鵡舍利塔記)> 등을 찬술했는데, <전당문(唐唐文)>에 게재돼 있다. 신회 선사가 입적하자 위고 거사는 친히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써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보였다.

무상 선사의 또 다른 제자가 무주지만, 무주는 일찍이 진초장(陳楚章) 거사에게 법을 얻었다. <역대삼보기(歷代三寶記)>와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 등 자료 기록에 의하면, 무주의 속성은 이(李)씨며, 봉상미현(鳳翔眉縣; 지금의 陝西省 眉縣) 사람이다. 북방에서 중군할 때 신안왕(信安王)의 중용을 받았다.



와 무주 선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선문답을 나눈 내용을 기록한다.

거사가 무주 선사에게 물기를, “김화상(무상선사)이 설한 무억(無憶), 무념(無念), 막망(莫妄)의 삼구(三句)를 들었습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들었다”라고 말했다.

거사가 “이 삼구는 하나입니까? 아니면 셋입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무억은 계(戒)의 이름이요, 무념은 정(定)의 이름이며, 막망은 해의 이름이다. 한 마음[一心]이 생가지 않으면, 계정해를 갖춘 것이기에 하나도 셋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거사가 물기를, “선사께서도 이 삼구를 사람들에게 보입니까?”라고 말하자 선사는 “조심학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쉬게 하고, 식(識)의 파도를 멈춰 맑게 하며, 물을 맑게 해 그림자를 비추게 하고, 무념체(無念體)를 깨닫게 해 적정(寂靜)이 현전하게 할 뿐으로, 무념은 또한 세우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거사는 무주 선사에게서 깨우침을 얻고, ‘마음에 선일이 깃들었다[棲心禪悅]’고 한다.

보당선의 성쇠와 상류층 거사들과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다. 무주 선사는 파촉(巴蜀)지역의 군벌(軍閥), 관료(官僚), 사자(士族)와 모두 교류가 있었다. 두홍점 거사는 성도(成都)에 들어온 이후에 현지군벌 최령(崔寧)과 인연을 맺고, 최령 거사를 통해 무주 선사에게 산을 나와 그들을 위해 선법(禪法)을 보여주기 위해 간곡히 청했다. 이로부터 보당선계가 형성됐다.

최령 거사의 본명은 간(干)이며, 조정에서는 두홍점의 요청으로 그를 서천절도사행군사마(西川節度使行軍司馬)로 임명하고, 명(明)이란 이름을 내렸다. 파촉에 10여 년을 재직하면서 지역의 융성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어찌 할 도리가 없어 관직이 상서우부사(尙書右仆射)에 이르렀다. 이렇게 두홍점과 최령 두 거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보당선은 파촉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번창했다.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에 따르면, “무주 선사가 익주에 도착하자 주의 관리들이 직접 영접했고, 현(縣)에 이르자 현령이 직접 길을 안내했다. 집집마다 깃발을 달았으며, 향을 피웠다”고 전한다. 이는 지방 세력의 불교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두 거사가 세상을 떠나고 최령 거사 또한 정치적 세력을 잃은 후에 보당선은 급속히 쇠락했다.

무주 선사 이후 제자들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보당선의 역사와 사상에 관련된 것은 이미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그에 따라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무주 선사의 전기도 실리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법을 펼침에 있어 선사의 뛰어난 선법도 중요하지만, 그를 지지해주는 제자 거사의 적극적인 지지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인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위고·진초장·최령·두홍점 등 지방세력 보당선 지원

귀의했던 거사들 사후 세력약화... 송대 ‘잊혀진 가풍’

무상 선사의 속성이 김(金)씨였기 때문에 김화상(金和尚)이라고도 불렸다. 신라(新羅) 왕족(王族) 출신이다. 출가 후에 서해를 건너 당(唐)에 와서 스승과 불도를 구했으며, 처적(處寂) 선사에게서 법을 얻었다. 후에 대부(大夫)인 장구결경(章仇兼瓊) 거사의 청으로 성도(成都)에 들어와 약 20여 년 선법을 펴고, 정중선(淨衆禪)을 창립했다. ‘정중선’의 건립은 필시 장구결경 거사의 도움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거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무상 선사는 신회(神會) 등의 많은 제자를 두었다. 신회는 정중사(淨衆寺)에 기거했고, 남양(南陽)의 하택신회(荷澤神會)와는 다른 인물이다. 그는 남강왕(南康王) 위고(偉高; 745~805) 거사의 귀의를 받았다. 위고 거사는 자(字)를 성무(咸武)라 하며, 경조(京兆) 사람이다. 정원(貞元) 초(785)에 검교호부상서(檢校戶部尙書)의 벼슬을 받았고 성도윤(成都尹)과 어사대부(御史大夫), 검남서전절도사(劍南西川節度使)를 겸했다. 후에 검교사도(檢校司空)로 승진하고 중

어느 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일생을 허비할 수 없다”고 느껴 관직을 버리고 구도(求道) 생활을 했다. 먼저 진초장 거사를 만났다. 진초장 거사는 흥인의 법사(法嗣)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송산(嵩山) 노안(老安)의 제자 제자였다. 진 거사는 무주를 위해 ‘돈오법’을 설하고 노안 선사의 선법(禪法)을 전수했다. 이 당시 무주는 아직 거사의 몸이었다. 후에 거사불교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태원(太原) 자재(自在) 선사 아래서 출가했다. 수년 후 다시 성도 정중사에 들어와 무상 선사를 참알했다. 무상 선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동선(董璇) 거사를 청해 비밀리에 가사(袈裟)를 주며 무주에게 전하게 해 정중선법(淨衆禪法)을 전승했다. 영태(永泰) 2년(766), 무주 선사는 두홍점(杜鴻漸) 거사의 청으로 성도 보당사(保唐寺)에 머물며 선법을 펴며, 보당선(保唐禪)을 창립했다. 보당선의 창립과정에 진초장, 동선, 두홍점 등 여러 거사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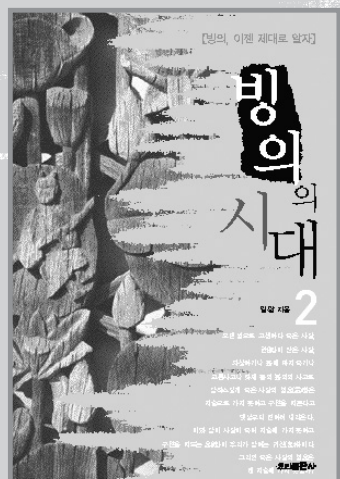
두홍점(杜鴻漸; 709~769)의 자(字)는 지선(之選)

이며, 재상 두섬(杜暹)의 혈족이다. 숙종(肅宗)시에 병부시랑(兵部侍郎)으로 임용됐고, 지중서사인사(知中書舍人事)를 역임했다. 두 거사는 대종(代宗)시에 병부시랑(兵部侍郎)과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의 고관을 맡았다. 영태(永泰) 2년(766)에 재상에 등용되고, 또한 성도윤(成都尹), 산남서도(山南西道), 검남동천부원수(劍南東川副元帥)를 겸했다. 신(新)·구(舊) <당서(唐書)> 기록에 의하면, 거사는 불교에 대한 신앙이 대단히 진실하고 성실했다. 재상과 성도윤을 겸하면서 검남서전절도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촉(蜀)의 땅에 보당선이 흥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다른 불교도 이 지역에서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했

다. <신당서> 권126에 실린 그의 전기에는 수천 여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구당서> 권108에 실린 전기에는 거사가 만년에 선리(禪理)를 추구하다 스님에게 부탁해 삭발수계를 받았고, 죽은 후에는 다비(荼毘)하라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전한다.

거사는 처음 익주(益州)에 도착했을 때, 사자를 백애산(白崖山)으로 파견해 무주 선사를 청하고 법을 물었다. <역대삼보기(歷代三寶記)>에 의하면, 거사는 무주 선사를 추종했기 때문에 현지 여러 장군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무주 선사가 이미 현지에 걸심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는 거사

빙의, 제대로 알자



빙의의 시대 2

지은이/일광(逸光)
신국판 /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일광 _ Tel. 010-5040-7679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제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란

불교 상·제례 관련교육과 실무서비스를 교육받아 장례,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상가봉사조직 등 운영 및 관리자로 진출하게 되는 전문직종입니다.

교육기간중 장례관련 아르바이트, 취업 가능!

- ◇ 교육기간 : 2008. 11. 29 ~ 2009. 7. 11 (8개월 과정, 총 160시간)
- ◇ 정규반 : 매주(화)오후 7시 ~9시 30분
매주 1,3주 (토)오후 4시 ~ 8시
- ◇ 통합반 : 매월 1,3주 (일)오전 10시 ~ 오후 7시
- ◇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 ◇ 모 집 : 선착순 40명(사찰 종무원 환영)
- ◇ 등록금 : 80만원(교재포함)
- ◇ 강사진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출신 석·박사

- ◇ 교육 내용 :
- 불교 상·제례 이론과 실습
- 장례법규와 공중보건학
- 장례 및 상소문화, 납골당, 자연장
- 불교장례 관련시설 현장학습
- ◇ 수료후 취업 및 활동 :
- 사찰 상가봉사조직 활동, 운영관리
-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운영 및 관리
- 상조회사 행사, 관리, 홍보
수료 후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

“사찰,신행단체에서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양성 지원을 통하여
조직적인 상가봉사활동으로 신도 수 2배 증가 실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주)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23-0444